

국제금융시장 3월 동향 및 4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이 유 나 (ynrhee@kdb.co.kr)
 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3월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이 상승, 4월에도 달러화 강세,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 등으로 인한 상승압력 예상
- ◆ **(금리)** 미 국채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유럽 및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약보합, 4월에도 경기회복 진행 추세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
- ◆ **(주가)** 선진국 증시는 경기회복 기대감에 월중반까지 상승하다, 월후반엔 미 국채 금리 상승폭 확대에 불안정하게 등락, 4월 들어서는 추가 상승 기조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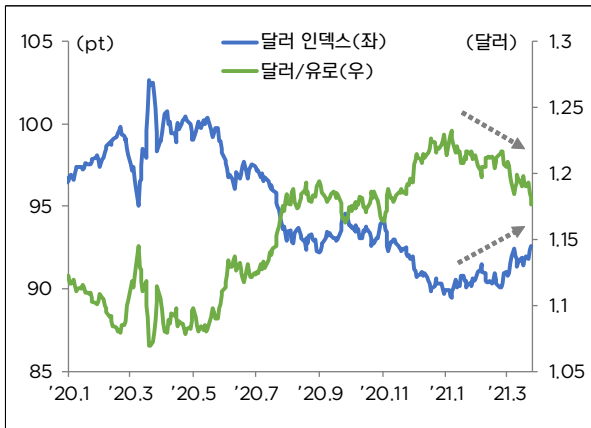
□ **(환율)** 3월 중 미국의 경기회복 가속화 기대 및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, 원/달러 환율은 상승 지속. 4월에도 달러화 강세의 지속 가운데, 외국인의 주식 배당금 송금 관련 수요 등으로 원/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압력이 예상

- (달러화) 2월에 이어 3월에도 미 경기회복 기대 및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며 달러 인덱스*가 상승, 4월에도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나) 대비 달러화 가치
 - (동향) 백신 접종과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'20.11월 이후 처음으로 92pt대로 상승
 - 연준은 3월 FOMC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3%p(4.2% → 6.5%) 상향 조정
 -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발표*에도 불구하고, 시장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미 국채 금리 및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가 지속
 - *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하여 "일시적인 과열"이라 평가하며, 금리 인상 등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
 - (전망) 백신 접종 속도, 재정정책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경기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어 달러화 강세가 4월에도 이어질 전망
 - 3.31일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 연설에서 2.25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법인세 인상(21% → 28%) 계획을 발표
- (유로화) 유로화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약세를 이어갈 전망
 - (동향) 유럽 내 백신 보급 차질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로존 경제 정상화 지연 우려, ECB 자산 매입 속도 진전 등으로 3월 달러/유로 환율은

'20.11월 이후 최저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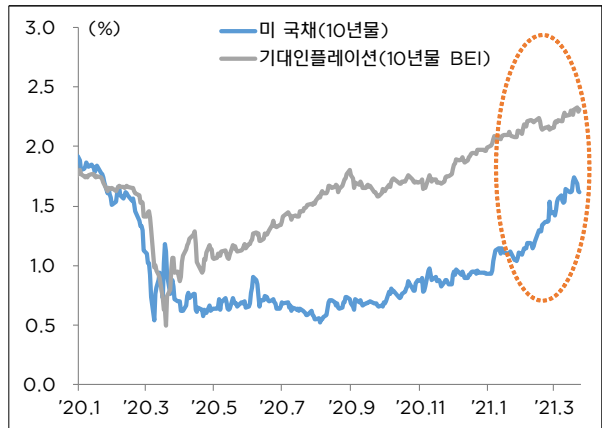
- (전망)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미-유럽 금리차 확대, ECB의 자산 매입 속도 상향 등의 영향으로 4월에도 유로화 약세가 이어질 전망

달러 인덱스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미 국채 금리 및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



주 : BEI(Breakeven Inflation Rate)는 미 국채 수익률(명목)에서 물가연동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, 기대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
 자료 :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

- (원화) 3월 중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, 4월에도 달러화 강세,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 등에 따른 상승압력이 예상
 - (동향)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3.9~10일 원/달러 환율이 5개월만에 1,14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, 이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매수, 대규모 선박 수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진정되며 1,130원 선에서 등락
 - (전망) 4월 중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주식 배당금 환전 수요가 예상되어 원/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압력이 예상

환율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2월말	'21.3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479	89.927	90.960	93.186	+2.45%
엔/달러	108.66	103.26	106.60	110.72	+3.87%
달러/유로	1.1219	1.2217	1.2065	1.1730	△2.78%
원/달러	1,156.4	1,086.3	1,123.5	1,131.8	+0.74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3월 중 미 국채 10년물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유럽 및 일본 국채 10년물은 약보합, 향후 시장금리 상승압력 지속 전망

- (동향)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승인 및 경기회복 기대감 증가 등 요인으로 국채 10년물 금리가 월중 대체적으로 상승하였고, 유럽 및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기회복 지체 전망 등으로 약보합
 - 미 국채 10년물은 바이든 행정부의 1.9조달러 경기부양법안 최종 승인(3.11), 2.25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안 발표(3.31)에 따른 경제활성화 기대와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완화정책 유지 결정*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금리 상승기조에 노출
 - * 미 연준은 FOMC(3.16~17)에서 정책금리 동결 및 자산매입 현 수준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제 활동과 고용지표들이 최근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, 장기 평균물가가 2%가 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의지를 재확인,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가능성을 시사
 - 유럽 ECB는 통화정책회의(3.11)에서 완화기조를 유지*기로 한데 이어, 일본 BOJ도 물가상승률 목표인 2%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나, 코로나19 확진자수 재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는 약보합
 - * 기준금리 동결, 자산매입의 규모 및 기간은 유지하되 팬데믹긴급자산매입 속도는 높일 계획임을 시사
- (전망) 미 부양책의 실행, 인프라 투자계획의 진전 등에 따른 실물경제 촉진 기대감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나, 각국의 코로나19 통제 수준 등에 따라 변동폭 차등 예상
 - 미국의 부양책 가동으로 소득 증가 및 소비 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 상승, 미 국채 수급 불균형 우려*, 4.5일 발표예정인 IMF 세계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상향 조정 등의 요인이 인플레이션 우려 심리를 자극할 전망
 - * 대규모 부양책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량 증가 전망 등
 - 유럽 및 일본은 미 국채시장 흐름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으나, 자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백신공급 등에 더욱 연동될 가능성

주요국 국채 금리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02월말	'21.03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1.9175	0.9132	1.4049	1.7404	+33.55bp
독일채 10y	-0.1850	-0.5690	-0.260	-0.2920	△3.20bp
일본채 10y	-0.0110	0.0210	0.1620	0.0950	△6.70bp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3월 주요국 증시는 월중반까지 상승하다 월후반 조정을 보였으며, 4월 들어서는 추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전망

- (동향) 증시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월중반까지 상승세였으나, 시장 금리의 우상향 진폭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등락을 반복
 - 미 증시는 국채 시장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혼조세를 보였으나,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기조 재확인, 코로나19백신 1억회 접종 돌파 등 경기회복 지원요인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전월말 대비 6.6% 상승 마감하였고,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등락하다 전월말 수준(13,246.87) 마감
 - 유로 Stoxx50 지수는 미국 증시에 동조하여 상승하였으나 독일 및 프랑스 등 지역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감염 증가 우려 및 일부지역 봉쇄 재개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되며 월중반 이후로는 횡보하여 전월말 대비 7.8% 상승 마감
 - 일본 Nikkei225 지수는 증시 부양책인 ETF 매입프로그램의 연간 매입하한(6조엔) 폐지 및 Nikkei 연동형 ETF상품 매입 중단 발표(BOJ, 3.19) 후 반락하여 전월말 수준 마감
- (전망)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투자 계획 등의 구체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상향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도 높아질 전망
 - 미국의 재정지원금 지급 등 부양책 실행, 백신보급 확대 등에 따른 경제활성화 기대 증가,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 기대 등으로 대체적인 증시 호조 예상
 - 유럽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이동 제한조치 추이,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 마찰 가능성 등이 증시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주요국 주가지수 변동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02월말	'21.03월말	전월대비
다우존스	28,538.44	30,606.48	30,932.37	32,981.55	6.625%
유로 Stoxx 50	3,745.15	3,552.64	3,636.44	3,919.21	7.776%
Nikkei 225	23,656.62	27,444.17	28,966.01	29,178.80	0.735%

자료 : Bloomberg

(담당자 : 환율 - 이유나, 금리·주가 - 장명화)